

【특집 · 국제 한자의 표준화】

한자 異體字典 편찬 연구

- 編纂 體制를 중심으로 -

李浚碩 · 李景遠

文博, 國立國語研究院 學藝研究士 · 文博, 漢陽大 中文學科 講師

一. 머리말

본 研究는 韓國의 각종 文獻¹⁾에 記載되어 있는 漢字 異體字²⁾를 選集하여 이를 字典으로 編輯할 때 어떤 形式과 方法을 취하는 것이 理想的인지를 提示하는 데에 主要 目的이 있다. 各種 文獻에 보이는 異體字를 選集하여 이를 어떤 用途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科學的이고 體系的인 形式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異體字典이며 異體字의 選集과 整理의 結果는 異體字典 編纂으로 비로소 實現되는 것이다.

異體字典의 編纂은 첫째, 컴퓨터 漢字코드의 統一과 관련이 있으며, 둘째, 漢字文化圈 사이에서 漢字를 媒介로 이루어지는 情報과 文化의 圓滑한 交流, 셋째, 國學資料 電算化를 통한 民族 文化 遺産의 整理와 保存 등 여러 方面에서 有用한 課題이다. 따라서 異體字를 選集하여 體系的인 整理를 위한 基礎的인 異體字典의 編纂方案에 대한 研究는 매우 시급하게 先決해야 할 작업이다.

1) 본고에서 말하는 文獻이란 우리나라의 漢字로 기록된 『高麗大藏經』·『朝鮮王朝實錄』·金石文·詩文集·韻書·字書·地圖·蒙學書·語彙集 등을 가리킨다.

2) 본고에서는 敘述의 便宜를 위해 漢字異體字를 略稱하여 異體字라고 한다.

體系的인 異體字典을 編纂하기 위해서는 選集 對象 漢字數와 對象 文獻의 確定 및 正字와 異體字 사이의 基準 確立 그리고 異體字의 選集 등과 같은 先行 作業이 必要하며, 前述한 基準에 依據해 所定の 編纂 體制에 따라 基本的인 異體字典을 편찬하게 되는 것이다.

본 研究는 바로 體系的인 異體字典 編纂 方案을 提示하는 것을 窮極的인 目標로 한다. 따라서 본 研究의 주요 論議 對象은 아래의 몇 가지이다.

- ① 異體字 選集과 整理의 必要性
- ② 異體字典 編纂 作業의 過程
- ③ 異體字典의 編纂 體制
- ④ 目的別 異體字典 編纂 體制的 類型
- ⑤ 異體字典 編纂 形式의 實例

본 研究의 細部 目標은 먼저, 異體字典이 완성된 후 使用者의 便宜를 고려한 編纂 方案을 提示하는 것이다. 즉 窮極的으로는 앞으로 編纂될 異體字典 編纂 體制와 그 實際 例를 提示하는 데에 있다. 물론 異體字典과 相關된 概念이나 體制는 選集 對象과 目的에 따라 달라지는데, 본고에서는 각 용도에 따른 異體字典 編纂에 필요한 概念과 形式에 대해서도 다루고자 한다.

中國의 각 朝代에는 漢字 字體를 정리하는 작업이 부단히 진행되어 왔다. 그 가운데 秦 始皇의 '書同文'과 隋·唐代의 '字樣學'이 유명하다. 특히 隋·唐代의 字樣學은 楷書字體의 正字 標準을 제시한 學術潮流로서, 그 이론을 현재의 漢字 規範化에 그대로 適用해도 될 정도로 合理的이고 體系的이다. 본고에서는 異體字典의 編纂방안에 필요한 概念과 방법을 考究할 때, 隋唐 字樣著作 및 歷代字書의 體制를 참조하여 활용할 것이다.

二. 異體字의 選集과 整理의 必要性

異體字典은 여러 문헌에 보이는 異體字를 모아서 編者が 定한 바의 體制에 따라 標題字와 그에 相應하는 異體字를 配列하여 놓은 字表의 하나이다. 용어의 概念으로 보면 異體字의 選集과 整理는 相關성은 있지만 동일 概念은 아니다.

選集이란 人爲的으로 加減하지 않고 對象 문헌에서 異體字를 뽑아 모아 놓은 것이고, 整理란 選集해 놓은 異體字를 所定の 基準에 의해 取捨選擇(도태와 選用)하는 過程을 거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문헌에 실려 있는 異體字를 選集하고 整理하는 작업은 왜 필요한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方面에서 절실히 필요하다.

① 우리나라 現行 漢字를 標準화한다

漢字의 標準字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使用 漢字의 客觀的 頻度 調査에 依據한 通用 漢字의 標準量을 정한 다음, 字形의 正字體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해진 漢字 字數에 따라 그에 相應하는 異體字를 選集하여야 한다. 異體字의 選集은 바로 漢字의 標準字體를 확립하기 위한 基礎 作業이다. 異體字의 選集이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異體字를 取捨 選擇하는 異體字의 整理라는 作業이 後續될 수 있다.

② 國學 資料를 電算化하여 文化 遺産을 保存·研究한다

우리나라의 文獻은 대부분이 漢字로 기록되어 있다. 현재에 와서 우리 後孫들은 이를 잘 保存하고 研究할 義務가 있다. 특히 情報通信 時代에 살고 있는 現 時點에서 文獻의 電算化는 必需的인 것이다. 만약 『高麗大藏經』·『朝鮮王朝實錄』 등과 같은 대형 문헌을 電算化할 때는 그 原文을 원모습 그대로 收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작업의 效率化를 圖謀할 수 있다³⁾.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文化 遺産의 保存이다. 선부른 校勘은 後日에 進行될 研究에 障礙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原文 그대로 入力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原文에는 도처에 正字와 對應하는 異體字가 存在하기 마련이다. 이는 文獻을 閱覽하고 研究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따라서 原文에 기재된 異體字의 字形을 그대로 入力하여 해당 문헌을 올바르게 研究할 수 있는 環境을 提供해야 한다. 전산화를 가정한 理想的인 校勘은 文獻 原文에 出現하는 異體字를 選集·

3) 國學資料의 漢字 字體를 校勘하는 작업은 電算化하는 데 큰 장애가 된다. 異體字를 모두 입력한 후 後續될 연구의 목적에 따라 기계적으로 校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原文의 異體字形 그대로 電算 入力될 수 있는 環境을 만들어야 한다.

整理한 후, 그 字體 關係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設計하는 순서로 한다. 예를 들면 原文에 기재되어 있는 異體字의 正字를 認知 못하는 경우, 그 異體字 위에 커서를 놓고 클릭하면 바로 相應하는 正字를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異體字의 選集과 整理는 國學 研究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모든 環境을 提供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다.

③ 漢字文化圈 사이에 漢字를 매개로 한 情報과 文化를 圓滑하게 交流한다.

漢字는 文字가 지닌 일반적 특성을 띠고 있는 문자이다. 다시 말하면 漢語를 記錄한 符號의 體系이다. 만약 이 符號를 標準化하지 않으면 文字의 원래 機能인 思想과 情報의 交流는 그만큼 制約을 받게 된다. 文字는 時間과 空間의인 背景에 따라 다른 樣相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時間의 推移에 따라 다른 書寫 體系를 갖추게 되는데, 秦나라의 小篆과 漢나라의 隸書가 서로 다른 書寫 體系로 字體를 달리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同一 書寫 體系 아래에서도 漢字 字體는 變化한다. 그 주요 原因은 대략 두 가지이다. 첫째는 地域의인 것이고, 둘째는 語文政策이다. 同一한 楷書 體系에서 南北朝가 분열되어 楷書 字體에 混亂을 惹起하였을 때, 이와 같은 狀況을 바로잡고자 隋唐 字樣學이 興起하였다.

隋唐 字樣學이 楷書의 標準字體를 確정한 후 中國에서 簡體字 方案을 제시하기 前까지 약 1000여 년 동안 漢字體는 거의 固定되어 있었다. 현재 中國과 臺灣 간의 政治와 地域의 分裂 그리고 文字 政策이 달라 각각 定한 標準字體 역시 다르다. 이는 南北朝의 文字 混亂相과 恰似하다. 물론 地域 分裂이라는 概念과는 상관없지만 韓國과 日本 등도 서로 다른 文字 政策을 施行함으로써 漢字文化圈의 漢字 字體는 偏差를 보이고 있다. 이를 平行의으로 또 한달음에 統一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文字 政策은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韓·中·日의 서로 다른 電算 漢字의 字體와 符號 體系로 國際電算網(internet)을 통한 신속한 情報·文化 교류에 상당한 障礙가 惹起되고 있는 現實을 고려해서 한·중·일을 비롯한 漢字文化圈이 國際 標準 漢字 特別 專門委員會(IRC)를 통해 協議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韓·中·日의 漢字를 標準化하는 基礎 作業으로서 異體字典을 編纂하

는 일은 대단히 時宜適切하며 時急한 課題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異體字典의 編纂은 바로 우리 漢字의 字體・讀音・教育用 漢字의 標準化와 直結됨은 물론이거니와 同時에 컴퓨터에 의해 이루어지는 生活 漢字의 標準化와도 直結되는 課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漢字文化圈 사이에 이루어지는 文化的 交流에서 落後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漢字를 먼저 標準化해야 하고 그 基礎 作業으로 異體字의 選集과 整理가 반드시 필요하다.

三. 異體字典의 編纂 過程

위에서 異體字典 編纂의 必要性에 대해서 論議하였다. 그렇다면 異體字典은 어떤 순서로 編纂되어야 하는가? 아래에서 순서별로 제시한다.

- ① 異體字典에 收錄할 漢字의 字數를 定한다.
- ② 漢字字體의 正字標準을 樹立한다.
- ③ 收錄할 漢字를 正字標準에 따라 標準字體를 確定한다.
- ④ 異體字를 選集할 對象 文獻을 決定한다. 多樣할수록 理想的이며 文獻의 略號도 定한다.
- ⑤ 異體字典의 格式을 編纂 體制에 따라 確定한다. (目的에 따라 格式을 달리 할 수 있다).
- ⑥ 選定된 正字에 從屬되는 異體字를 對象 文獻에서 選集한다.
- ⑦ 選集한 異體字를 定해진 格式에 따라 收錄한다. 格式은 編纂 體制를 適用하여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理想的이다. 異體字典의 目的에 따라 編纂 體制를 달리한 格式을 制定하여 각 目的에 맞추어 收錄한다. 格式에는 標題字에 대한 情報과 異體字에 대한 情報 등이 있다. 標題字에 대한 情報에 UCS코드 番號도 記入한다.
- ⑧ 索引을 作成한다. 索引은 또한 目的에 따라 그 體制를 달리한다. 특히 특정 문헌을 대상으로 한 이체자전의 색인에는 '難檢字表'도 작성한다.
- ⑨ 異體字典 編纂의 全體의인 體制와 文獻의 略號 등 全般的인 일러두기를 作成한다. 만약 漢字文化圈의 讀者들을 勘案한다면 中國語와 日語로 된 일러두기의 作成도 考慮해 볼 만하다.

四. 異體字典의 編纂 體制

위에서 異體字典 編纂의 必要性和 그 過程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여기서는 異體字典을 실제로 編纂할 때 과연 어떤 體制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이상적인가를 체계적으로 提示하고자 한다.

異體字典은 目的이나 성격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一般異體字典 ② 特定文獻을 對象으로 한 異體字典 ③ 漢字文化圈 漢字體 標準化를 위한 異體字典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이 세 가지는 編纂 體制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 여기서는 異體字典 編纂의 세부적인 體制를 논의하면서 목적에 따라 다른 편찬법에 대해서도 該當 項目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異體字典의 編纂 體制는 어떠한 것이 가장 이상적일까? 여기서 既存의 代表의인 異體字典인 『金石異體字典』⁴⁾ · 『木簡字典』⁵⁾ · 『敦煌俗字譜』⁶⁾ · 『碑別字新編』⁷⁾ · 『隋唐字樣著作正俗字譜』⁸⁾ · 『한자의 자형 조사』(1) · (2)⁹⁾ 등의 체제를 折衷 補完하여 體系的인 異體字典의 形式을 提示하고자 한다.

4.1. 對象 文獻

- ① 特定 文獻을 對象으로 한 異體字典은 그 문헌에 출현하는 異體字를 選集하고 정리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물론 그 對象도 특정 문헌에 그친다. 예를 들어 『高麗大藏經』을 對象으로 하였다면 異體字의 選集도 『高麗大藏經』에 국한되며, 『朝鮮王朝實錄』을 對象으로 하였다면 異體字의 選集은 역시 『朝鮮王朝實錄』에 국한될 것이다.
- ② 일반적인 異體字典의 對象 文獻은 다양할수록 이상적이다. 異體字 來源의 多樣性은 바로 普遍性을 의미하기 때문에 독자들로 하여금 信賴感을 준다. 그러나 어느 文獻이든 異體字가 발견되지만, 대량의 異體字를 지니고

4) 佐野光一, 『金石異體字典』, 雄山閣.

5) 佐野光一, 『木簡字典』, 東京: 雄山閣, 1985年.

6) 潘重規, 『敦煌俗字譜』, 石門圖書公司, 1978년8월.

7) 秦公, 『碑別字新編』, 文物出版社, 1985年.

8) 李景遠, 『隋唐字樣著作正俗字譜』, 國立臺灣師範大學國文研究所, 1997년 6월.

9) 국립국어연구원, 『한자의 자형 조사』(1) · (2), 국립국어연구원, 1996년 · 1997년.

있는 文獻을 중심으로 異體字를 수집하여 異體字典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高麗大藏經』이나 『朝鮮王朝實錄』 등이다. 그 가운데 『高麗大藏經』은 판각된 漢字의 총수가 대략 5,000만 자가 넘고¹⁰⁾, 또 佛經 寫本을 板刻한 것이므로 당시 漢字文化圈에서 사용하던 異體字의 거의 모든 樣相을 보존하고 있다. 이런 까닭으로 異體字의 選集對象 文獻은 異體字의 사용 상황을 거의 網羅하고 있는 大型 文獻을 위주로 하여야 하고 아울러 각종 고대 전적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漢字문화권 漢字 字體 標準化 사업을 위한 異體字典의 異體字 選集 對象 文獻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대변하는 ②의 예처럼 대형 文獻을 중심으로 그 다양성을 꾀하여야 한다.

4.2. 正字基準

正字는 當時 標準에 符合하는 字體이다. 어느 한 시대의 標準字體는 그 시대 政府가 확정하고 公布하여 正式으로 사용한 자체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1988년 3월 중국의 國家語言文字工作委員會와 中華人民共和國新聞出版署가 聯合 公布한 『現代漢語通用字表』에 수록된 字體가 현재 중국에서 通用되는 漢字의 標準字體이며, 1982년 9월 2일 教育部가 國立臺灣師範大學 國文研究所에 委託制定하여 公布한 『常用國字標準字體表』의 자체가 현재 臺灣 常用字의 標準字體이다.

이처럼 中國의 簡體字 方案 실행 이후 漢字文化圈 各國이 나뉘는 正字 基準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正字 基準을 平行的으로 統一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현재 韓國·中國·臺灣·日本 등 地域에서 사용하는 漢字 字體의 偏差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으로 새로운 異體字典이 編纂되더라도 현시점에서의 주요 正字 基準은 『康熙字典』에 根據함이 마땅하다. 『康熙字典』은 編纂(1716年)된 지 280여 년이 지났지만 收錄된 字形과 그 部首體系는 아직도 漢字文化圈 국가들이 따르고 있고, 특히 韓國·中國大陸·臺灣·日本에서 출판되는 이

10) 李圭甲 『高麗大藏經의 異體字 研究』(中國語文學論集, 第7號, 中國語文學研究會, 1995年)에서는 高麗大藏經에 쓰여진 글자의 總數는 대략 5,000萬字를 상회하며, 한자로 쓰여진 단일 자료 가운데 이와 견줄 만한 고대문헌은 중국의 二十五史나 朝鮮王朝實錄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방면의 學術著作은 아직까지 대체로 『康熙字典』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현재 漢字文化圈 국가의 漢字 字體 統一이 성사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비록 『康熙字典』의 收錄 字形이 시대에 뒤떨어진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基準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현재 널리 通用되고 있는 字體가 『康熙字典』의 正字와 차이가 있을 경우 隋唐 字樣學의 時宜의 文字觀을 참작하여 通用字體를 수용하는 方案도 排除하여서는 안 된다¹¹⁾. 예를 들면 『康熙字典』의 ‘既’·‘概’ 등과 같이 ‘臼’ 偏旁를 따른 字는 현대 臺灣¹²⁾과 中國¹³⁾에서는 모두 ‘既’·‘概’를 標準字體로 삼고 있다. 이는 모두 『康熙字典』의 畵례에서 벗어나 時宜의인 文字觀을 受用한 것이다.

4.3. 分類 方式

漢字의 分類 方式은 크게 偏旁(部首) 分類와 聲韻(四聲) 分類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새로 編纂되는 異體字典은 部首 分類를, 그 가운데서도 『康熙字典』의 214部首 體系¹⁴⁾를 채택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아래 몇 가지이다.

- ① 異體字典은 자형이 다른 자를 匯集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한다. 바로 漢字의 形體를 다루는 까닭으로 字形 分類法인 部首 分類法을 채택하여야 한다.
- ② 聲韻 分類는 독자가 某字의 異體字의 音を 아는 것을 前提로 한다. 그러나 讀者의 立場에서 어떤 異體字의 正字를 認知하고 있다고 한다면 異體字典은

-
- 11) 時宜의 文字觀은 그 時代에 適合한 字體를 正字로 看倣하는 觀點을 말한다. 異體字典에서 正字의 基準은 『康熙字典』의 字體를 第一 根據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대에 널리 通用되고 있는 字體는 時宜의 文字觀에 따라 現用 字體를 正字로 삼을 수도 있다.
 - 12) 中華民國 教育部가 1982년 國立臺灣師範大學國文研究所에 委託 制定하여 公布한 『常用國字標準字體表』를 참고 바람.
 - 13) 1988년 國家語言文字工作委員會와 中華人民共和國新聞出版署가 聯合 公布한 『現代漢語通用字表』를 참고 바람.
 - 14) 漢字의 部首分類法은 東漢 許慎의 『說文解字』가 540부를 창조한 이후, 『玉篇』 542부·『開元文字音義』 320부·『龍龕手鑑』 242부를 거쳐 『字彙』에 이르러 214부로 개정된다. 『康熙字典』은 『字彙』의 部수체계를 그대로 계승하였으며, 근년에 와서 『漢語大字典』은 또 『康熙字典』의 部수를 병합하여 200부로 개정하였다.

根本的으로 必要가 없다. 實用的인 側面에서 讀者가 異體字의 正字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假定 아래에서 異體字表를 編纂하여야 한다. 異體字의 正字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찌 그 음을 알겠는가? 이런 연유로 音順보다는 部首順 배열이 異體字의 正字를 확인하는 데 편리하다.

- ③ 만약 새로운 異體字典이 編纂된다면, 이는 어느 한 地域이 아니라 漢字文化圈 全域에서 이용될 것이다. 따라서 聲韻 分類는 中國 漢字音・韓國 漢字音・日本 漢字音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어느 한 가지 方式을 채택한다면 互用性이 떨어질 것이다. 비록 한국에서 편찬된 異體字典이라 하더라도 이는 한국인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漢字文化圈 나아가서 世界人을 염두에 두고 編纂하여야 하므로 그 分類 體系는 가장 普遍的이고 互用性을 가진 偏旁 分類 즉 部首 體系를 선택함이 바람직하다.
- ④ 漢字文化圈에서 출판한 이 방면의 저작은 아직까지는 대체로 『康熙字典』의 214부수 체계를 따르고 있다. 근년에 와서 『漢語大字典』이 『康熙字典』 214부수를 병합하여 200부로 개정하였으나, 앞으로 또 어떤 자전이 어떻게 개정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漢字文化圈 국가에서 부수 체계를 통일하기 전까지는 전통적인 『康熙字典』의 부수 체계를 따르는 것이 뒷날 수정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4.4. 異體字 配列의 原則

異體字를 異體字典에 配列하는 原則은 狀況에 따라 아래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① 正字와 同一部首의 異體字 : 正字와 同一部首를 따른 異體字란 正字와 義符가 같고 聲符가 다른 자형을 말한다. 이러한 관계의 異體字는 同一部首內에 相應하는 正字(標題字) 아래에 배치된다. 역대 字書가 채택한 일반적인 異體字 歸屬 方式도 이와 같다. 예를 들면 宋・重修『玉篇・示部』: “禮, 力底切. 體也, 理也; 礼, 古文”・“祀, 徐里切 …; 禩, 同上”과 같은 體制가 바로 그것이다.
- ② 部首와 비슷한 뜻으로 생성된 異體字 : 異體字 가운데는 正字의 義符와

뜻이 비슷한 義符를 취함으로써 생성된 것도 있다. 이와 같이 義符를 正字의 義符와 뜻이 가까운 것으로 代替한 異體字¹⁵⁾는 正字와 거의 等級이 비슷하여 時代에 따라 正字로 變身할 수도 있는 字形이다. 이러한 관계의 正字와 異體字는 異體字典에서는 각기 그 字體가 취하고 있는 部首 아래에 歸屬시킨다. 이 體制는 顧野王『玉篇』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原本『玉篇』殘卷에서 확인된다 :

『玉篇·欠部』：“歌，古何反…或爲譌字，在言部，古文爲哥字，在可部”

『玉篇·言部』：“譌，葛羅反…野王案…或爲譌字，在欠部，古文爲哥字，在可部”

『玉篇·可部』：“哥，古何反，『說文』：聲也，古文以爲歌字，野王案：『尙書』或爲譌字，在言部”

『玉篇』은 위와 같이 ‘歌’·‘譌’·‘哥’등 세 가지 字形이 異體 關係임을 밝히고 아울러 또 이를 각 字體가 따른 部首에 標題字로 귀속시키고 있다. 이러한 異體字 처리의 방식은 後代『五經文字』¹⁶⁾에도 沿用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배열법은 특정 문헌을 對象으로 하였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방식은 標題字의 總數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 ③ 部首의 유사한 형태에서 발생한 異體字：正字와 異體字가 각기 다른 부수의 形體가 近似하여 발생한 異體字는 각 字體가 지니는 부수에 귀속시킨다. 예를 들면 木部와 手(扌)部·彳部와 犬(犴)部·巾部와 心(忄)部·衣(衤)部와 示(衤)部 등은 자형이 近似한 관계로 쉽게 混用이 된다¹⁷⁾.

15) 義近義符 通用의 類型에 대해서는 高明「古體漢字義近形旁通用例」(中國語文研究, 第四期, 1982年, 香港)·張世超「古文字義近形旁通用問題」(東北師大學報, 1986年第二期)·李圭甲「同一字族研究」(中國語文學論集第9號, 中國語文學研究會, 1997.8)·河永三「顧藹吉隸辨之研究」(國立政治大學中國文學研究所碩士論文, 1987年)·李景遠「張參五經文字之研究」(國立政治大學中國文學研究所碩士論文, 1989年)·韓耀隆『中國文字義符通釋例』등을 참고 바람.

16) 『五經文字·辵部』：“邊邊，上邊疆之邊；下邊豆之邊，邊亦作邊，別見匚部，『五經文字·匚部』：“匱，匱豆，多作邊，已見辵部”라고 하여 重文을 각기 따른 部首 아래에서 標題字로 삼고 있다.

예를 들면 『高麗大藏經』에 ‘枚’를 ‘攷’(大般若經·九卷·一版·23行)·‘極’을 ‘極’(大般若經·七十七卷·一版·22行) 등으로 혼용하고 있다¹⁸⁾. 이런 경우 일반 異體字典이나 漢字文化圈 漢字體 標準化를 위한 異體字典에는 모두 異體字로 상응하는 標題字 아래에 歸屬시킨다. 그러나 특정 문헌을 對象으로 한 경우에는 ‘枚’는 ‘木’부에 ‘攷’는 ‘手’부에 歸屬시켜 각각을 標題字로 삼고, ‘攷’字條에 ‘木’部를 따른 것이 正字임을 표기한다. 檢索의 便利를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 ④ 字形이 비슷하여 서로 誤用한 異體字 : 두 자가 각기 다른 音訓을 가진 글자이지만 字形이 近似하여 誤用한 異體字도 있다. 사실 이런 字體가 문헌을 열람할 때 가장 문제가 된다. 두 자가 根本적으로 다른 글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大藏經에는 “身衣如故, 徇易爲頭”(大藏一覽集·四卷·二十九版·8行)라는 문장이 있다. ‘徇’는 원래 ‘踣’의 異體字이며 ‘뛰다’·‘手足이 얼어서 곱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뜻을 가지고서는 原文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 자세히 관찰하면 ‘徇’는 ‘踣’의 異體字가 아니고, 바로 ‘狗’자의 誤用이다. 이런 關係가 밝혀진 후에야 비로소 “몸과 옷은 예전과 같은데, (머리는)개의 머리로 바뀌었다”라고 文義에 맞게 해석이 된다. 이러한 관계의 異體字는 ‘犬(犴)’部에는 異體字로 ‘狗’字 아래에 배치하고, 또 ‘彳’部에는 표제자로 삼고 ‘狗’字와 오용된 異體字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자형이 비슷하여 오용되는 字體를 변별한 예는 唐代字樣著作에 주로 보이며, 正統字書에는 보이지 않는 특이한 體制이다. 예를 들면 『五經文字·水部』: “瀾瀾, 並來安反. 上大波也; 下瀾潘也”는 바로 字形과 字音의 근사함에서 비롯되는 문자의 오용을 변별한 예이다. 물론 이 방식은 특정 문헌을 對象으로 한 異體字典에만 가능한 體制이다.
- ⑤ 板刻의 誤謄로 발생한 異體字 : 誤寫에서 起因하였든 아니면 板刻 過程에서 起因하였든, 결과적으로 誤刻으로 판명된 字體의 경우 이를 그 자의

17) 部首形近誤用例은 李景遠, 『張參五經文字之研究』의 「分部的特點」·「部首形近訛用例」條를 참고 바람.

18) 高麗大藏經에 판각된 한자 가운데 部首의 形近으로 발생한 이체자의 양상에 대해서는 李圭甲 「高麗大藏經의 異體字 研究」 『中國語文論集』, 第7號, 中國語文學研究會, 1995年)에 자세히 분류되어 있다.

正字 아래에 배치하고 '備註'欄에서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相'字를 '𣎵'(大藏一覽集·一卷·二版·6行)로 판각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⁹⁾. 이 역시 특정 문헌을 對象으로 한 異體字典에만 국한되는 體制이다.

4.5. 字體 等級의 區分

異體字典에서 字體 等級은 일반적으로 正字와 異體字의 두 等級으로 나누는 二分法을 채택한다. 즉 正字와 그리고 異體字가 그 아래에 從屬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特殊 目的을 지닌 異體字典은 字體 等級을 '正字'·'通字'·'異體字' 등 세 等級으로 나누는 三分法을 택할 수도 있다. 바로 漢字文化圈 漢字體 標準化 사업을 위한 異體字典이 여기에 속한다. '正'·'通'·'異'로 字體 等級을 三分하는 體制는 唐代『干祿字書』에서 由來한 것으로, 원래 字體를 '正'·'通'·'俗'으로 三分하고 각기 그 쓰이는 範疇를 정하였다. 본고에서는 단지 三分하는 概念만을 빌어와서 漢字文化圈 漢字 字體 標準化를 위한 異體字典에 應用하려 한다. 예를 들면 '正體'는 우리나라가 정한 標準에 맞는 字體이고, '通體'는 우리나라 문헌에 출현하는 字體로 正字는 될 수 없으나, 그 字體가 中國·日本 등에서는 標準字體로 쓰이는 경우이다. 이런 字體를 '通體'로 받아들이는 의도는 우리나라에서는 正字가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서 常用 字體로 쓰이는 경우, 이를 우리나라에서 第二級 字體로 認定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概念의 字體를 相對國에게 提示하여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常用 字體를 教育하도록 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그리고 "異體"는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第三級 字體이다.

물론 '三分法' 보다 더 세밀하게 '多分法'을 채택할 수도 있다. 어쨌든 字體 等級을 구분하는 것은 漢字文化圈 漢字體 標準化를 위한 異體字典에만 국한되는 體制이다.

19) 「大藏一覽集·一卷·二版·6行」에는 「教𣎵品」으로 판각되어 있으나 「大藏一覽集·九卷·一版·7行」에는 「教相品」이라고 제대로 판각되어 있다, 이로부터 「𣎵」이 판각의 오류임을 추정할 수 있다.

4.6. 標題字 配列의 原則

먼저 部首別로 配列을 한다. 그리고 同一 部首內에서는 劃數別로 배열을 하고, 同一 劃數의 漢字는 『康熙字典』의 字次를 따른다.

4.7. 音義가 不明한 異體字의 處理

字音은 있으나 字義가 불명한 字體 혹은 音義 둘 다 밝혀지지 않은 疑難字를 모아 異體字表의 末尾에 '疑難字表'를 첨부한다. 이 體制는 『康熙字典·備考』에 그 由來를 두고 있다. 『康熙字典』 末尾 「備考」에 이르기를: “무릇 음이 있으나 뜻을 없는 것 혹은 음과 뜻 전부 없어 고증할 수 없는 것을 備考 한 권으로 만들었다 (凡無可考據有音無義或音義全無者爲作備考一卷)”라고 하였다. 물론 이 체제는 일반 異體字典과 특정 문헌을 對象으로 한 異體字典에만 국한되는 體制이다.

4.8. 索引 方式

異體字典은 索引이 그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異體字의 正字가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索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끔 하여야 한다. 索引에는 部首 索引·字音 索引·總劃 索引·形體 索引 등이 있다. 異體字典에는 독자들의 편의를 감안한다면 이 모든 方式을 採擇하여야 하며, 또한 正字와 異體字 가운데 무엇을 基準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形式은 아래와 같이 달라진다.

- ① 正字를 基準으로 하였을 때에는 部首 索引·總劃 索引·字音 索引 등 세 가지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 ② 異體字를 基準으로 하였을 때에는 部首 索引, 그리고 總劃·形體 索引法 방식을 折衷한 形式을 채택하여야 한다. 異體字의 正字를 모른다는 假定下에서 字音 索引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總劃과 形體를 折衷한 索引은 먼저 總劃數順으로 배열하고 同一劃數의 漢字는 첫 두 筆劃의 形態에 의거하는 것을 말한다. 첫 두 필획의 형태는 『漢語大字典』 등 中國

에서 많이 쓰고 있는 一丨ノ丶 ㄱ 등의 순서에 따른다. 예를 들어 ‘國’字의 첫 두 획은 ‘丨ㄱ’이므로 11획 ‘丨ㄱ’에 배열한다.

- ③ 그 어떤 방식으로든 찾기 힘든 字體는 한 곳에 모아 ‘難檢字表’를 만든다. 이러한 방식은 唐代字樣著作인 唐玄度『九經字樣』의 ‘難辨部’에서 그 由來를 찾아볼 수 있다. 어떤 字體의 偏旁이 어느 部首에도 歸屬시키지 어려울 때『九經字樣』은 末尾에 ‘難辨部’를 두어 문제를 해결하였다.

4.9. 標題字에 대한 附加的인 體例

異體字典에는 異體字를 단순히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附加的인 體制를 갖추어야 한다. 그 주요한 것은 아래 몇 가지이다.

- ① 標題字는 楷書正字로 한다.
- ② 標題字에 一連番號(字碼)를 매겨서 索引에도 이를 기록하여 줌으로써 檢索에 편리함을 준다. 字碼에는 部首・同一部首 內的 字次 그리고 또 다른 필요한 記號를 표기할 수도 있다.
- ③ 標題字에 部首를 제외한 劃數를 기재한다.
- ④ 標題字에 UCS코드를 기재한다.
- ⑤ 標題字 아래에 小篆을 附記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漢字 字體 變遷의 脈絡을 把握할 수 있게 한다.
- ⑥ 標題字 아래에는 韓國 漢字音を 명기하여야 하며 나아가 字義를 명기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만약 漢字文化圈의 독자들을 배려한다면 字音은 韓國 漢字音 외에도 中國 漢字音과 日本 漢字音を 표기하여야 하며, 字義 또한 한글과 漢字로 표기할 수도 있다. 만약 韓國 漢字音이 없는 자의 경우는 反切로 표기한다. 破音字(一字多讀) 같은 경우는 여러 음을 모두 표기하는 것이 좋다.
- ⑦ 異體字마다 異體字의 出處를 상세히 밝혀 학술적인 근거로 삼는다.
- ⑧ 備註欄을 만들어 碑銘・唐代 寫本・歷代 字書 등에 동일하거나 근사한 異體字가 수록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比較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 淵源 關係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혹 어느 문헌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正字를 제시할 수 있는 字體가 있을 경우, 이 欄을 빌려 보충 설명을 한다.

五. 目的別 異體字典 編纂 體制의 類型

위에서 서술하였듯이 異體字典은 目的이나 성격에 따라 그 編纂 體制를 달리 할 수 있다. 이를 도표로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異體字典의 目的別 分類 項目	一般 異體字典	特定 文獻 對象 異體字典	漢字文化圈 漢字體 標準化 異體字典	備 註
收錄 字數	編者の 基準에 따름	對象 文獻에 出現 하는 모든 異體字	該當 委員會 所定에 依據 (예를들면 KSC5601의 경우 4888字)	
正字 基準	일정한 基準에 따름	일정한 基準에 따름	일정한 基準에 따름	
異體字 選集 對象	제한을 두지 않음	特定文獻	제한을 두지 않음	
異體字 範圍	狹義의 異體字	廣義의 異體字	狹義의 異體字	廣義의 異體字는 通假字나 誤字도 포함
正字 選擇	일정한 基準에 따름	일정한 基準에 따름	일정한 基準에 따름	
字體 等級 區分	正字와 異體字 (二分法)	正字와 異體字 (二分法)	正體・通體・異體 (三分法)	三分法 대신 多分法도 가능
異體字表 細部 形式의 特記事項		分類法・雙向 검색 方式 適用	UCS코드번호 기재	
索引法	部首・音順・形體・ 總劃	部首・音順・形體 ・總劃・難檢字表	部首・總劃・形體	正字와 異體字를 基準으로 한 索 引法-折衷補完
部首數	《康熙字典》 214部	《康熙字典》 214部	214+新字體를 包括할 수 있는 部首 追加	部首의 數는 可變

六. 異體字典 編纂 形式의 實例

위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異體字典의 格式과 ‘手部’·‘艸部’·‘虎部’ 漢字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실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形 式〉

部 首

部首 의 劃 數	一連番號	字 音			字 義		異 體 字			備 註
	標題字	韓 國 漢 字 音	中 國 漢 字 音	日 本 漢 字 音	한 글 訓	漢 字 訓	異體字1	異體字2	異體字...	歷代字典·寫 本·金石文의 收錄 字形과 比較/異體字形 에 대한 附加 說明
	UCS 코드						出處 (文獻의 略號·面· 行·次까지 기재)	出處 (文獻의 略號·面· 行·次까지 기재)	出處 (文獻의 略號·面· 行·次까지 기재)	

〈實 例〉

手部

部首 의 획수	一連番號	字 音			字 義		異 體 字			備 註
	標題字	韓	中	日	韓	漢	이체자1	이체자2	이체자3	
	UCS코드						出處	出處	出處	
5	0001	발	ba2	バツ・ハイ ・ぬく・ぬ ける・ぬか す・ぬける	빼다	擡也	拔			《干祿字書》 :“拔拔, 援上俗 下正”
	拔						祖堂・16			
	62D4						・13・16			
6	0002	지	zhi3	シ・ゆび ・さす	손가락	手指也	指	指	指	《五經文字》 :“指 指, 上說 文; 下石經”
	指						왕조실록 ・태조	祖堂・12 ・16・23	大・覽木 ・1・48 ・14	
	6307									

艸部

部首 의 획수	一連番號	字 音			字 義		異 體 字			備 註
	標題字 UCS코드	韓	中	日	韓	漢	이체자1 出處	이체자2 出處	이체자3 出處	
5	0000	원	yuan2	エン・ オン・ その	나라 동산	所以 養禽 獸也	苑	苑	苑	
	苑									
	82D1						왕조실록 · 정종	大般·1 · 2·19	祖堂·16 · 12·6	

虎部

部 首 의 획 수	一連番號	字 音			字 義		異 體 字			備 註
	標題字 UCS코드	韓	中	日	韓	漢	이체자1 出處	이체자2 出處	이체자3 出處	
	0000	처	chu4	シヨ・ ところ	살다	居也	處	处	處	《正名要錄》 ①·2·5:“處處” 《群書新定字 樣》:“處, 正; 處, 相承用” 《五經文字· 虎部》:“處俗 作處者, 非”
處	왕조실록 · 태조						육취	祖堂·14 · 13·23		
8655										
	處 處 處 處									
	大·覽·1 · 2·14	大·覽·3· 40·34	大·覽·3·40 · 34	大·覽·9·6·2						

七. 맺음말

中國의 각 朝代에는 不斷히 漢字 字體 標準化 事業을 展開하였으나, 唯一하게 隋唐代의 字樣學 運動만이 그 結實을 이루어 楷書字體의 標準字體가 確立된 후 中國에서 簡體字를 正식으로 使用하기 이전까지 漢字의 字體는 약 10世紀 동안 큰 變化는 없었다. 이는 隋唐 字樣學者들의 努力과 印刷術이라는 文明의 利器가 잘 接木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각 地域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字體를 隋唐의 開放의이고 時宜의인 文字觀을 適用하여 적절히 折衷 補完하여 漢字 字體 統一案을 제시하고 아울러 컴퓨터라는 文明의 利器를 利用하면 漢字 字體의 標準化는 成功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標準化의 다양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먼저 漢字 字體의 갖가지 樣相을 選集·整理한 異體字典의 編纂이 先行되어야 한다. 본고는 바로 異體字典을 編纂함에 필요한 體系的인 概念과 方法 그리고 實際 形式을 提示하는데 역을 두었다.

참 고 문 헌

- 『說文解字注』 漢·許慎 撰·段玉裁 注, 天工書局, 臺北.
- 『原本玉篇殘卷』 梁·顧野王 編撰, 中華書局, 1985年.
- 重修『玉篇』 宋·陳彭年等, 文淵閣, 四庫全書.
- 『五經文字』, 唐·張參, 後知不足齋本.
- 『九經字樣』, 唐·唐玄度, 後知不足齋本.
- 『千祿字書』, 唐·顏元孫, 後知不足齋本.
- 『高麗大藏經』
- 『康熙字典』, 清·張書玉 等, 國際文化出版公司, 1993年.
- 『金石異體字典』, 佐野光一, 雄山閣.
- 『木簡字典』, 佐野光一, 雄山閣, 東京, 1985年.
- 『敦煌俗字譜』, 潘重規 主編, 臺北石門圖書公司, 臺北, 1978年.
- 『碑別字新編』 秦公, 文物出版社, 1985年.
- 『한자 자형 조사(1).(2)』, 국립국어연구원, 1996, 1997.
- 『常用國字標準字體表』, 教育部委託國立臺灣師範大學國文研究所研訂, 正中書局, 1979년.
- 『語言文字規範手冊』(增訂本), 語文出版社, 1993年.
- 『漢語大字典』, 漢語大字典編輯委員會, 湖北辭書出版社·四川辭書出版社 1993年.
- 李圭甲, 「高麗大藏經의 異體字 研究」, 『中國語文學論集』 第7號, 中國語文學研究會, 1995년.
- 李圭甲, 「同一字族研究」, 『中國語文學論集』 第9號, 中國語文學研究會, 1997年 8月.
- 張涌泉, 『敦煌俗字研究』, 上海教育出版社, 1996年.
- 李景遠, 「張參五經文字之研究」, 『國立政治大學中國文學研究所碩士論文』, 1989年.
- 李景遠, 「隋唐字樣學研究」, 『國立臺灣師範大學國文研究所博士論文』, 1997年 6月.

李景遠 「隋唐字樣著作正俗字譜」,『國立臺灣師範大學國文研究所博士論文附錄』, 1997年 6月.

李景遠 「唐代字樣著作에 나타난 正字觀 및 그 理論根據-顏之推 《顏氏家訓·書證篇》의 文字觀」,『中國語文論叢』12輯, 中國語文學會, 1997年 6月.

李景遠 「唐代字樣所呈現的正字觀」,『國文天地』第十三卷第三期, 1997年 8月.

李景遠 「漢字異體字表의 編纂體例 試探」,『中國語文學論集中 第10號』, 國語文學研究會 1998年 8月.